

5월 3주차 Q&A — ISA 환노출 ETF vs 미국 직투 & 한국 자본통제 안정성

2026-05-19 · 박종훈의 지식한방 · qna_part4_05

Q&A 5월 3주차 (2026-05-19, parent: Part 4-5강). 산책하는 하마님 단일 질문 — ISA 환노출 ETF로 가나, 달러로 직접 환전해 미국 직투하나? 강사는 표면(세율 9.9% vs 22%) 뒤의 진짜 질문 둘 — '달러 표시 자산은 무엇을 해준다' + '한국에서 시스템 분산은 진짜 의미 있나' — 로 분해한다. 환율 헤지 ≠ 시스템 헤지 / 자본통제 3 사례(아르헨 65%·키프로스 47%·레바논 86%) vs 한국 1997(자본통제 안 한 나라) / 달러 직접의 핵심 = 환율 타이밍 자율성 / 위기 시 환율·주가 분리. 결론 — ISA 유지 + 한도 초과분은 한국 증권사 직투.

01 핵심 골격

- 1 표면 질문 vs 진짜 질문** — 표면은 세율(ISA 9.9% vs 양도세 22%). 진짜는 ① 달러 표시 자산은 무엇을 해준다 ② 한국에서 시스템 분산은 진짜 의미 있나.
- 2 환노출 ETF = 미국 주가 × 원달러 환율** — 환헤지는 환율 고정(비용 발생, 장기 손해). 원화 장기 약세 거의 분명 → 강사는 환노출 권장. TIGER 미국나스닥100 ≈ QQQ (가격 동일, 수수료 도찌개찌).
- 3 ISA 절세 정량** — 3,000만원 차익 시 일반계좌 462만 / ISA 일반형 **277만** / 미국 직투 605만원. 일반계좌 한국ETF는 종합소득세 합산 위험, ISA가 그 위험을 회피.
- 4 환율 헤지 ≠ 시스템 헤지** — 환율 헤지(원화 약세 시 자산 ↑)는 ISA 환노출로 **가능**. 시스템 헤지(자산이 어느 시스템 안인가)는 ISA로 **불가능**. 차원이 다르다.
- 5 자본통제가 한 일** — 아르헨 2001 **65%** / 키프로스 2013 **47%** / 레바논 2019~ **86%** 달러 자산 파괴. 국가가 통제하면 시스템 안 달러도 몰수된다.
- 6 1997 한국의 진실** — 800→1,960원에도 외환시장 일시 중단만, 개인 인출 한도·강제 환전·예금 헤어 컷 **모두 없었다**. 한국은 자본통제를 한 적이 없는 나라.

- 7 달러 직접의 진짜 가치 = 환율 타이밍 자율성 — 매도와 환전 시점을 분리하는 자유. ISA는 매도 시 환율 고정. 위기 시 환율·주가 분리 활용(2008 나스닥 -41% but 원달러 +57%)도 달러 직접 보유의 우위.
- 8 종합 — 직관 정확(환율 헤지 ≠ 시스템 분산). 한국 시스템 분산은 아직 비용 > 가치. ISA 유지 + 한도 초과분은 한국 증권사 직투. 미국 직투는 일반인에게 관리·세금 복잡성으로 쉽지 않다.

02 최신 지표 보강 (2026-05-19)

ISA 절세 정량 — 3,000만원 차익 시 일반 462만 /
ISA 277만 / 미국직투 605만원

강사 인용. 1억 운용 5년간 차익 분산 실현(누적 3,000만원) 가정. 일반 계좌 배당소득세 15.4% = 462만원 / ISA 일반형(200만원 비과세 + 나머지 2,800만원 9.9%) = 277만원 / 미국 증권사 직투 양도세 22%(250만원 공제) = 605만원. 세금만 놓고 보면 ISA 일반형이 최소. 단 일반계좌 한국ETF는 수익금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될 위험이 있어, 자산가는 종합소득세 미합산인 미국 직투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음 — ISA는 이 종합소득세 위험을 회피.

자본통제 3 사례 — 달러 자산 파괴율 아르헨 65% /
키프로스 47% / 레바논 86%

강사 인용. 아르헨티나 2001 — 주 250 페소 인출 한도 + 달러 예금 강제 페소 전환 → 65% 파괴. 키프로스 2013 — ATM 300유로 + 10만 유로 초과 헤어컷 → 초과분 최대 47% 파괴. 레바논 2019~ — 월 200~400달러 인출 한도 + 달러 14% 가치 환전 → 86% 파괴. 국가가 자본통제를 하면 시스템 안에 있던 달러 자산조차 가치가 몰수된다. 거대한 위기는 인류사상 30~40년에 한 번 씩.

1997 한국 — 800→1,960원에도 인출 한도·강제 환전·헤어컷 모두 X

강사 인용. 1997 외환위기 때 환율 800원 → 1,960원 폭등. 그러나 한국은 외환시장 거래 일시 중단만 했을 뿐 개인 인출 한도 X, 강제 환전 X, 예금 헤어컷 X — 오히려 자본시장을 추가 개방. 국가 부도 위기에도 반시장 정책을 만들지 않아 한국에서 달러 자산은 가치가 보존됐다. 한국 자본주의는 아르헨/키프로스/레바논보다 자본통제 리스크 면에서 한 차원 위.

위기 시 환율·주가 분리 — 2008 나스닥 -41% but 원달러 +57% / 2020 -30% +9%

강사 인용. 나스닥 30%+ 하락은 7~8년마다, 50%+ 하락은 15년마다 발생(완전히 피한 적 없음). 폭락 시 위험 회피 심리로 달러 강세·원화 약세 → 원달러 급등. 2008 글로벌 금융위기 — 나스닥 -41%지만 원달러 1,000→1,570원 (+57%) → TIGER 나스닥100 보유 시 환차익으로 약 +15% 이익 보고 탈출 가능, 사전 달러 현금 보유 시 환차익 57% 향유. 2020 코로나 — 나스닥 -30%, 원달러 +9%. 달러 직접 보유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.

03 한국 투자자 — 예의주시 신호 3가지

- 01 **환노출 ETF 선택** — 환헤지는 헤지 비용이 들고, 원화의 장기 약세가 거의 분명해 장기 보유 시 손해. 강사 명시. TIGER 미국나스닥100(환노출)은 QQQ와 가격이 똑같이 움직이고 수수료 격차도 거의 사라졌다.
- 02 **ISA는 버리지 않는다 — 절세는 진짜 가치** — 환노출형으로 환율 문제도 따라갈 수 있고 9.9% 절세는 확실하다. 강사 명시 ("ISA를 절대 버릴 필요는 없다").
- 03 **ISA 한도 초과분은 한국 증권사 직투** — 서울(22% vs 15.4%)만 보면 손해 같지만 환율 타이밍 자율성 등 유리한 측면이 있어 한도 초과분은 한국 증권사 직투가 더 낫다. 강사 명시. 미국 증권사 직투는 계좌 개설·관리·세금 신고의 복잡성과 리스크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으며(주재원·특파원 등 해외 거주자만 옵션), 한국 시스템 위기는 아직 고민할 단계가 아니다.

표면 질문(ISA 9.9% vs 양도세 22%) vs 진짜 질문(달러 표시 자산은 무엇을 해주나 + 시스템 분산 의미)

환노출 ETF = 미국 주가 $\times$ 원달러 환율 / 환헤지는 비용·장기 손해

타이거 미국 나스닥100(환노출) $\approx$ QQQ — 가격 동일, 수수료 도찌개찌

ISA 절세 정량 — 3,000만원 차익 시 일반 462 / ISA 277 / 미국직투 605만원

한국 세법 아이러니 — 일반계좌 한국ETF 종합소득세 합산 위험, 자산가는 미국 직투 유리

환율 헤지(ISA 가능) $\neq$ 시스템 헤지(ISA 불가능) — 차원이 다르다

자본통제 3 사례 — 아르헨 65% / 키프로스 47% / 레바논 86% 달러 자산 파괴

한국 1997 — 800→1,960원에도 인출한도·강제한전·헤어컷 X, 자본통제 안 한 나라

Fanding @kpunch · qna_part4_05